

## 기독교 세계관과 미술의 회복

오의석 교수(대구가톨릭대 미술학부)

### I. 서론

미술의 회복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미술이 병들어 있거나 적어도 건강치 못한 상태임을 전제하고 있다. 한스 로크마커는 그의 저서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에서 20세기의 미술의 의식과 작가들의 작품을 심도 있게 다룬 바 있는데, 그가 사용한 ‘죽음’이란 표제 속에서 우리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술의 절망적인 상황을 예감할 수 있다. 그의 말처럼 현대 미술은 죽은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논의하게 될 미술의 범위와 현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미술의 범위에 건축과 디자인의 영역 전부를 포함시킨다면 우리의 현대 생활 공간 전체가 곧 미술이라 할만큼 주거와 가구, 의상, 자동차, 많은 제품들에 이르기까지 눈으로 보고 접촉하는 우리의 환경들은 대부분 디자인되어 있는 조형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적인 미술이지만 그 의식과 양식은 전혀 현대적이지 않은 다양한 미술의 양태들이 오늘도 공존하고 있다. 이 모든 미술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로크마커가 사망으로 진단하며 다룬 미술의 범위도 현대의 세계관 안에 있는 순수미술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렇지만 소위 순수미술이 아닌 미술도 세계관과 전혀 무관한 예외적인 영역이라 할 수는 없다. 거기에도 여전히 인간과 세상, 물질, 환경 등에 대한 가치와 관점들이 스며있고 어떤 면에서는 순수미술의 영역보다 더욱 확연하게 그러한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미술의 전반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망해 볼 필요성을 갖는다. 기독교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의 체계이고 틀이라고 한다면 미술이란 영역도 기독교 세계관의 조망과 검증을 통해서 문제들을 드러내고 바른 위치로의 회복을 위한 대안들이 찾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관과 미술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첫째는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서 미술은 어느 정도 조망될 수 있으며 그 조망의 결과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며, 둘째는 기독교 세계관과 미술에 관한 이해를 통해서 기독교 미술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며 미술계 전반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여기서 첫 번째 관심이 미술의 실상과 문제에 대한 지적과 드러냄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두 번째 관심은 그에 대한 대안적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기독교 미술은 미술사의 한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고 현대 기독교 미술 또한 현대 미술의 한 부분을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미술과 기독교 미술의 이해는 이 두 영역을 구분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를 하나로 포괄하여 보는 통합적인 이해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세계관으로서의 미술

좋은 미술은 사물을 바르게 봄으로써 시작된다는 후랭키 쉐퍼의 말은 세계관과 관련

하여 깊이 음미할 가치가 있다. 미술이 바라보는 대상은 단순한 사물에 그치지 않고 세상 전체, 곧 인간과 자연, 역사, 현실의 모든 것에 이를 수 있으며 그것들에 대한 바른 시각과 전망을 가지는 것은 좋은 미술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오늘날의 미술은 전통적인 미술론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작가들의 분방한 실험의식과 그에 상응하는 현대적인 매체와 기법의 뒷받침으로 인해 일어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결과 그것이 어떤 것이든 미술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미술이라 부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미술제도론이 설득력을 갖게 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 작가들에게 작품 창작에 관한 무한의 자유를 주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지만, 실상은 작업을 위해서 아무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작품을 세워가는 것이며, 어떠한 정박할 항구도 없이 항해를 떠나야 하는 것과는 같다.

이러한 미술계의 정황 속에서 세계관으로서의 미술론은 이미 한 시대의 정신으로서 그 의미가 밝혀져 있는 역사적인 미술을 포함하여 현대의 다양한 미술 현상과 구조들을 포괄하며 다룰 수 있는 미술론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세계관이 없이 삶을 지탱하는 인간이 있기 어렵듯이 세계관이 없는 작가나 세계관을 드러내지 않는 작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란시스 쉐퍼는 그의 저서 「예술과 성경」에서 미술을 크게 미술을 위한 미술과 메시지의 전하기 위한 미술로 대별하면서 그 어떤 경우라도 예외 없이 세계관을 드러내며 견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은 기술적 탁월성, 내용과 형식의 일치, 순수성과 함께 작품의 평가에 있어서 주요한 한 항목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작품이 가진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 것임을 주장한 바 있다.

### Ⅲ. 미술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의 조망

#### 1. 창조

미술이 단순한 공예를 의미하던 시대에 미술가의 위치는 장인에 불과 했다. 그러나 현대의 작가들은 자신들을 단순한 장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창조적 상상력과 표현력을 가진 존재로 여긴다. 그 창조성의 근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인간의 창조적인 예술활동은 비롯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예술적 창조의 앞선 원형이자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장엄한 선언으로부터 우리는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미술관’, ‘작은 토기장이론’ 등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평가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시각미술의 한 원형이고 모델이 됨을 확인한다.

예술이 자연의 모방이다라는 오랜 명제는 창조주의 작품인 자연이 미술의 오랜 대상이었음을 말해 준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서 보기에 심히 좋은 목적을 갖고 창조된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의 미는 완벽한 질서와 조화 균형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자연은 미의 원천으로서 관찰과 묘사, 해석과 변형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다. 인간이 만든 수많은 인공물과 예술작품들이 자연, 곧 동물과 식물의 형태로부터 착안되고

고안된 사례를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창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라면 인간의 창조는 이미 창조된 것으로 창조한다는 점에서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도 뒤따르는 옛세 동안의 창조를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기 때문에 원초적 창조와 구별하여 제2창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점에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은 원초적 창조인 제1창조가 아닌 제2창조에 가깝다. 이러한 인간 창조의 차별성은 곧 인간의 조형적 활동이 창조주에 대해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으로 나타난다. 이 의존성은 곧 조형의 작업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적 동역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작품의 재료로 자연재인 돌이나 나무를 사용할 경우 그 독특한 재질감과 무늬 등은 이미 잠재해 있는 매체적 특성을 인간이 찾아 드러낸 것이며 이점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로서 작품이 놓여지는 환경에 있어서도 인공적인 조명의 전시실이 아닌 자연의 조건 속에 작품을 놓여질 경우 작가의 창조적인 작업은 자연이라는 환경 속에서 협력과 공존을 필요로 한다.

현대의 작가들 중에는 미술이 가지는 창조성의 의미와 가치, 그 힘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그 창조성의 근원이나 창조의 대상, 창조의 제한성과 의존성 등에 대해서는 중요시하지 않거나 의식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그것은 곧 그 창조성을 지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의 결과이며, 최초 인간의 아담의 반역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인간성의 혼미함과 교만에 기초한다. 기독교 세계관의 다음 주제인 타락의 구조는 이러한 문제들의 보다 구체적인 뿌리와 현상을 살펴 볼 수 있게 한다.

## 2. 타락

타락과 함께 인간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는 그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 됨이 심히 파괴되었다는 점이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 역시 손상을 가져왔다. 타락의 결과 하나님과의 훼손된 관계에서 생긴 대표적인 죄는 우상숭배였는데 이는 피조 세계의 일부를 절대화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섬기는 것을 뜻한다.

타락으로 인해서 미술은 우상 숭배를 돕고 조장하는 역할을 하며 등장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창조력이 왜곡되고 오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문화 창조에 사용된 경우이다. 조각의 발생과 관련하여 신의 개념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이론이 있을 만큼 조각사의 초기 작품들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 작품들로서 원시 종교적인 세계관, 곧 애니미즘, 토렘미즘 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형상을 통한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의 형상이다. 특히 이 금송아지 형상의 제작은 그들의 인도자 모세가 우상숭배의 금지 명령이 포함된 십계명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다. 성경은 이와 달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조형물의 사례들도 함께 기록하고 있음을 통해서 현대 그리스도인 작가들의 조형 작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타락의 결과 우상으로서의 미술품 제작과 함께 오늘날에 더욱 심각한 현상은 곧 미술 그 자체가 우상화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현대미술과 관련해서 기독교 미술 이론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현대미술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로크마커는 이러한 현상이 유럽에 있어서 이성의 시대라고 불리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서 미술이 공예가 아닌 순수미술로 구분되면서부터 나타난 것으로 어떤 면에서 예술이 종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비이스는 예술을 경배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오늘날 학계와 예술계에서 자주들을 수 있는 문구들의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미술 비평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휘들인 영감, 이상, 초월, 신화, 신현, 계시 등이 기독교에서 차용된 말들로 보고 있으며 현대의 세속적 예술 지상주의는 구조적으로 고대 가나안 족속의 종교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편다.

결국 타락의 구조 속에서 첫째, 미술은 먼저 하나님을 대신할 것으로서의 우상의 제작에 오용되어지는 모습을 보여 주며, 둘째 하나님의 위치에 놓여져서 우상시되는 위험을 보여준다. 전자는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대표되고 있으며 후자는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까지 이르려 했던 인간의 조형적 노력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3. 구 속

타락이 피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 역시 피조 세계의 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왜곡된 피조계를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본래의 구조대로 회복시키려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술의 회복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타락으로 인한 우상 숭배적 미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성육신의 역사적 사건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타락이 후,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는 형상을 원하게 했다.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온 성육신의 신비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의 깨우침과 확증을 통해서 우상 숭배적 전통의 모든 미술이 지닌 혼미함은 구속될 수 있는 것이다.

성육신의 사건은 또한 구속이 미술이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로버드 웨버는 그의 저서 「기독교 문화관」에서 교회사에 나타난 문화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모델로 분리, 동일 시, 변형 모델을 다루면서 이 세 모델이 가진 성경적 역사적 진리를 하나의 수미 일관한 체계로 묶어주는 모델로 성육신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 미술의 바람직한 모습으로서 문화의 시대성과 지역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기독교적인 정신을 견지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과제와 일치되는 논점이다.

구속의 미술이 지향해야 할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서는 미술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재능과 재료, 환경에 대한 청지기 의식. 이 모든 요건들을 통한 섬김의 자세, 작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성의 회복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덕목들은 현대의 미술계서 강조되지 아니하는 가치들이기에 구속의 미술은 필연적으로 이 시대에 대한 역행적이고 변혁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 IV. 요약 및 결어 : 미술의 회복과 기독교 미술에 대한 제안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으로 바라 본 미술의 모습은 긍정과 부정의 긴장 속에서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함께 가진다. 미술의 창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

조된 존재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됨에 대한 반응의 결과이자 표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모방적이고 의존적이며 동역적인 의미를 가진다. 반면 타락과 함께 초래된 미술의 모습은 이상숭배를 조장하거나 협력하는 인간정신의 혼미함과 미술 자체를 구도와 절대적 위치에 놓는 반역의 태도를 보여 준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성육신은 이상 숭배적 미술의 종결과 함께 구속의 미술이 견지해야 할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미술의 회복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의 미술 이해는 미술이 지닌 본래의 가치와 의미를 존중하면서도 그 오용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책임의식과 절제를 통해 균형 있고 바르게 쓰여져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의 구조 안에서 구속된 미술은 기독교 미술이 견지 해야 할 입장과 자세를 알려 주고 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미술이 다루어야 할 대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제안한다. 그 것은 기독교 미술이 반드시 기독교적 주제와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거나 교회에 소용되는 미술로 그 범위를 제한시키지 않는다.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에 주목할 수도 있고, 타락된 세상, 곧 인간에 의해 왜곡된 역사와 사회와 현실의 제 문제들을 다룰 수도 있다. 그리고 복음과 말씀 속의 사건, 경건한 삶을 그리며, 기독교의 정신적 가치와 덕목들을 조형적으로 해석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이처럼 기독교 미술의 지평이 확대되어가고, 세상의 미술 또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바른 위치로 회복을 이루어 갈 때 두 미술 사이의 많은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일치와 통합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미술론의 확산과 이를 구체적으로 작업에 적용한 작품들에 의한 갱신이 필요하며, 기독교 미술인들의 미술에 대한 문화 변혁적 자세가 요구된다.